

# 〈유이양문록〉에 구현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양상과 의미

조광국\*

1. 서론
2. 남성과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3. 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4. 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5. 결론

## 1. 서론

우리의 고전소설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과연 그런 사랑에 빠지는 일이 가능하기는 했을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상대방을 만나본 지 한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지는 것”<sup>1)</sup>이라고 정의할 때, 남녀의 내외 구분이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그런 사랑을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작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생규장전>의 ‘규장(窺牆)’은 ‘담장을 넘어서는 시선’을 뜻하는바 제목에서부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암시하고 있고, <운영전>에서 운영은 김지사를 처음 대하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랑을 경험한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그네 타는 춘향을 보고 想思之心을 느낀 것도 또한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대하소설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남녀가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여 정신이

\*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부교수

1) 얼 나무만(지음), 김은우(옮김), 『첫눈에 반한 사랑(Love at first sight)』, 뿌리와이파리, 2002, p.15.

흥미해지는가 하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상대방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상사병으로 식음을 잊기도 하는 등 ‘첫눈에 반하는 사랑’ 이야기기를 이모저모로 보여준다. 애정전기소설에서나 대하소설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서사 전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삼았으며, 심지어 그 자체를 미학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염정소설, 애정소설, 애정갈등, 애정결연서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에 적합한 단편 분량의 소설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벌여왔고, 대하소설 분야에서는 혼사장애, 애정 결연, 애정혼, 애정 형상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왔다.<sup>2)</sup> 이제는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 기대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학술논문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애정담론을 통해 고전소설의 애정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넓게는 근대의 중매결혼 비판과 자유연애 옹호의 흐름에 대한 문학사적인 맥락을 짚어낼 수 있다면, 그런 용어의 사용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라 본다. 그만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논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고에서 애정전기소설과 대하소설을 망라하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소설사적 전개 양상을 밝히려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지면으로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 방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연구 상황에서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대하소설 분야,<sup>3)</sup> 그 중에서도 <유이양문록><sup>4)</sup>에 한정하여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애정담론의 양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사 정리는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pp.3~9 참조.

3) 대하소설 분야에서 상층의 별벌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남녀의 애정에 관해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창란호연록>에서 仲媒婚과 대비한 愛情婚을 고찰한 양민정 교수의 연구와, <소현성록>의 家門婚, 社會婚, 個人婚을 고찰한 임치균 교수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혼인 논의에서 비켜서서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을 분석한 고은임의 연구가 있다(양민정[=양혜란],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양반 가문의 애정혼 고찰」,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pp.32~33. ; 고은임, 앞의 논문, pp.1~122).

다행히도 이 작품은 여느 대하소설에 비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다양한 층위로 집대성한 작품으로 보인다.<sup>5)</sup> 서사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2쌍의 결연담 중,<sup>6)</sup>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커플은, 일부다처를 한 데 묶은 것을 남녀 1:1로 세분화하면 모두 일곱 쌍이 된다.<sup>7)</sup> 그 일곱 커플은 저마다 다채로운 서사 전개 과정을 통해 미시적이고 차별적인 애정담론을 형성해낸다.

본고에서는 이들 애정담론을 애정 주체의 성별에 따라 (1) 남성과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 (2) 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 (3) 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로 나누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남성은 호방풍정형과 군자지향형, 여성은 애정추구형(애욕추구형 포함)과 여사지향형으로 나누어 남녀의 결연형태 별로<sup>8)</sup>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세부 편차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첫눈에 반하는 대목을 각각의 경우마다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런 사랑의 작품적 위상이 큰바,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각각의 양상과 의미를 요약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이양문록>에 구현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늠해볼 것이다.

---

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뉴니양문록> 77권7책본(권6, 권74 낙질).  
 5) 다음의 선행 작품론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 김기동, 「화산선계록과 유이양문록」, 『현평효 박사 화갑 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0, pp.91~101. ; 이수봉, 「유이양문록연구」, 『개신어문연구』 4, 개신어문연구회, 1985, pp.127~175. ;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p.190.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성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107~128. ;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pp.213~246. ;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pp.283~309.  
 6) 조광국, 앞의 논문, p.190.  
 7) 유세행·유세운과 최일벽·최차벽의 쌍둥이 커플, 이연기·한소주·(유필엽) 커플, 이차염·설영문 커플, 윤운방·이창원 커플, 이창희·(장병염)·영릉공주 커플, 장계성·이몽혜·(여경요)·양연화·(범옥주·3회첩)의 커플인데, 마지막에서 장계성·양연화 커플과 장계성·이몽혜 커플로 세분되어 총 7커플이 된다. 괄호 안의 인물은 일부다처로 맺어진 여성이되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들 커플은 작품의 중심가문인 유문, 이문, 장문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것들로서 그에 상응하는 작품적 비중을 지닌다.  
 8) 부부의 캐릭터와 캐릭터 조합 방식은 다음 논문의 방식을 따른다. :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2007, pp.55~84.

## 2. 남성과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유세행·세운과 최일벽·차벽의 쌍둥이 커플, 그리고 이차염·설영문 커플과 장계성·양연화 커플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사지향형 여성의 커플과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정추구형 여성의 커플로 나뉜다.

### 2.1.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사지향형 여성 쌍방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

㉠ 세형 세눈이 최가 두 쇼저를 만나니 정히 전세(前世)의 늦거운 면목을 만났는지라 스인(四人)이 더히미 서로 용식(容色)을 놀날 분 아니라 반갑고 슬픈 정이 뉴동호여 한훤 낭구(良久)의 스인이 추파쌍성의 눈물이 어려워 옥안년힘의 슬픈 괴운이 가득호여 문득 오열호물 씨닷지 못호여 눈물이 썩러지는지라(권17)

㉡ 낭 쇼제 나직이 스스홀 썩름이오 너는 말이 업시니 뉴공즈 등이 투목으로 즈로 도라보고 탄식고 그옥이 흠이호는 정이 간절호니 이중 세형은 당쇼저(長小姐)를 반기고 세운은 츠쇼저(次小姐)를 반기니 낭 쇼저의 뜻이 썩호 다르미 업손 중 슬픈 뜻이 더운지라 더를 보미 놀납고 각각 심시 도치 아나 언어슈작홀 뜻이 업스되 (…) 날이 어두오미 잇그려 나갈시 뉴공즈 이인이 작음 왈 “현미(賢妹) 등은 무양(無恙)호라 진실노 니별이 썩섭호나 후일의 만나미 잇시리라”(권17)

㉠과 ㉡에서 보듯 유세행·세운 형제와 최일벽·차벽 자매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 반갑고도 슬픈 정을 나누면서도 “흠애하는 정이 간절함”을 느낀다. 헤어진 후로는 서로를 향한 그리움의 情이 양가의 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쌍둥이 커플로 맺어지기에 이른다.

작가는 이들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사지향형 여성의 커플로 설정하되,<sup>9)</sup> 이들 커플을 이중사촌간이면서 쌍둥이로

설정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실색”(권17)과 모친 마음에 “경이”와 “불평” (권17)을 불러일으키는 등 이들의 결연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소간 어렵게 시작한다.<sup>10)</sup> 또한 그 이후에 외부 인물에 의한 파란만장한 혼사장애를 - 예컨대 조백명·조완(삼촌간의 매파 수뢰·사주, 최부 노비와의 공모, 술법사 금강탑과의 제휴 등을 통해 - 설정한다. 이런 슬한 장애의 극복 과정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그런데 전생에서 한왕의 역모에 희생된 부부였다가 현세에 환생하여 부부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sup>11)</sup> 이들 커플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확보한다. 대하소설의 일반적인 서사방식에 따르면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자지향형 여성 사이에서는 애정이 생기지 않으며 또한 그들의 결연도 양가 가부장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작가는 그런 상례를 넘어서서 이들 커플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부여하고, ‘전생의 인연’이라는 일종의 天定緣을 부여함으로써, 벌벌가부장제 담론에 미묘한 反響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2.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정추구형 여성 쌍방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하는 경우

㉞ 싱이 숙모를 보라 니부의 왕니 빈빈터니 츠염이 숙모 침방의 와 한담하더니 (...) 절식가인이라 호상하고 인신 피홀 줄 모르고 서서 보니 설부인이 급히 달너를 창 밧그로 밀고 덮으롤 칙왈 “선비(先輩)되여 형실을 숨가지 아냐 여츠

9) 유세행·세운은 정인군자풍의 인물이다. 최일벽·차벽 또한 “장강(莊姜)의 고음과 임사의 덕량(德量)이 겸전(兼全)한”(권17) 여성들로 女教를 힘쓰며, 聖德과 德量을 갖추기에 힘쓰던 여자지향형 인물이다.  
10)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맺으려 하는 어떤 커플도 양가의 심각한 반대를 피해가지는 못한다. 이에 관해 상세히 제시하는 것을 피하고 이렇게 거론해두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이하 커플의 경우에서도 동일하다.  
11) 유춘·남부인 부부와 유준·윤부인 부부는 한왕의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가 한왕에게 죽임을 당함.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유춘·유준 형제는 동생 유진의 쌍둥이 아들로 환생하고, 남부인·윤부인은 최옥의 쌍둥이 딸로 환생함. 어사 최옥의 꿈에 현몽하여 자신들이 쌍둥이로 태어날 것임을 밝힘. 이들이 태어나자 주변 사람들은 외모가 유춘·유진과 남부인·윤부인을 빼닮은 것을 보고 놀람. 유문의 가부장 유진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미인도에 그려진 여인들의 모습이 쌍둥이 자매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놀람.

무례<sup>호</sup>뇨” 성이 더참스죄(大慙謝罪)호고 도라가니 츠염이 침소의 도라가 설성의 옥면유풍(玉面遺風)이 진죽 가랑(佳郎)이라 제 또 날을 보는 눈이 무심치 아니니 필연(必然) 유정(有情)호미라 (...) 호여 설성을 스모(思慕)호여 츠인 곳 아니면 취가(娶嫁)호 뜻이 업스니(권11)

㉞ 설성 이 호호 츠염의 절미호 식 보고 정신이 호터져 싱각호되 (...) 너 브더 지취(再娶)호여 향방(香房)의 낙스(樂事)를 온전히 호리라 이쳐로 싱각호여 살스난 녀이 방계곡경(傍蹊曲徑)의 밋즈나 계괴 업고 서로 보물 핑계호고 니부의 년일(連日)호여 나들며 (...) 가마니 서간(書簡)을 지어 날니니 츠염이 설성 스모호미 병이 되엇더니 의외(意外) 저의 정서(情書)를 보미 깃브며 놀나 답서를 지어 후정(厚情)을 칭스(稱謝)호고 인연을 도모호여 늑네(六禮)로 마즈물 윈 호여시니 음비호 설화(說話)를 엇지 다 기록호리오(권11)

㉟ 냥구히 서서 보니 츠평쌍성(秋波雙星)이며 월익봉미(月額鳳眉)와 홍협단순(紅臉丹脣)이 절세미려(絶世美麗)호고 교염찬난(嬌艷燦爛)호야 (...) 그 미인과 눈이 마조치니 미인이 더경호야 드러가거늘 성이 호호 두려 나와 동즈로 호여 금 밧그로 가 뉘 집인고 아라오라 (...) 호고 낭중의 필연을 취호야 쇼지의 씨왈 “송하지인(松下之人)을 좃고져 호거든 산서 순무어스 당계성이라 계성의게 도라를 쓰지이시면 의신을 덕회여 저버리지 아니리라” 호야 송엽(松葉) 스이에 쎄우고 도라가며 (...) 밧비 취호 뜻이 나느니라(권51)

㊱ 송하의 일위 쇼년 남지 즈가을 향호야 뿌러질 드시 보는 눈의 마조치니 경괴호야 드러가며 몸을 감초아 다시 보니 그 쇼년이 벽벽이 덕강선지(謫降仙者)라 동탕(動蕩)호 골격과 출인호 풍되 티빅(太白)의 호상호와 두목지(杜牧之)의 화려호물 겸호야시니 (...) 더경실식(大驚失色)호야 만심흠탄(滿心欽歎)호여 어린 드시 인스를 아지 못호거늘 (...) 양시 묵연(默然) 탄왈 (...) 즈금 이후로 나의 신세를 타인의게 의논치 못호지라 (...) 일노써 나의 동신을 의탁호리니 부피 횡혀 타문의 의논코져 호시는 일이 업게 호라”(권51)

㉞와 ㉟는 이차염과 설영문 쌍방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대목이다. 이차염은 설영문의 “옥면유풍”에 반하여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설영문은 이차염의 “절미한 색”에 “정신이 흠어”짐을 경험하는 순간 그녀를

부실로 들이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몰래 만나 연정을 나눈다. 유부남인 설영문은 부모에게 재취의 뜻을 밝히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리고 이차염 역시 심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양가에서 이들의 열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혼인을 허락하기에 이른다.

㉞와 ㉞는 장계성과 양연화 쌍방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대목이다. 장계성은 양연화와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절세미려”하고 “교염찬란”함에 빠져들고,<sup>12)</sup> 양연화도 “대경실색”하여 “인사불성”의 상태를 경험하고 부모가 “타문의 의논코져 하시느 일”이 없이 그와 혼인할 것을 결심한다. 장계성은 양연화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하다가 본가에는 알리지 않고 不告以娶의 혼례를 올린다.

작가는 이차염·설영문과 장계성·양연화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모두 ‘풍류랑과 가인의 만남’(권11), 즉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정추구형 여성의 커플로 설정하여 상층 별얼가문의 남녀의 愛情 혹은 愛慾의 문제를 풀어간다. 그런데 작가는 이차염·설영문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하게 하지만, 혼인 과정에서 이차염의 성향을 바뀌게 하고 이들이 부부갈등을 겪도록 설정한다. 즉 이차염이 애정추구형 여성에서 여사지향형 인물로 거듭나면서 남편과의 애정 교류를 꺼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남편이 疑妻症을 지님으로써<sup>13)</sup>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벌이는 것이다.<sup>14)</sup> 그 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sup>15)</sup> 설영문도 군자지향형 인물로 거듭남으로써 두 사람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작가가 시누이인 유평염을 통해 이차염의 ‘첫눈에

---

12) 장계성은 이몽혜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밀어붙여 혼약하지만 그녀로부터 사랑을 얻어 내지 못하고 이몽혜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양연화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도 양연화가 이몽혜와 흡사해서였다.

13) 설영문은 “음난흔 녀지 그 스이틀 춤지 못혀여 다른 더 날과 갖치 언약흐미 잇서 날을 거절흐미라 그러커든 쾌히 니르고 도라가라”(권12)라며, 이차염을 淫女로 몰아세운다.

14) 이 의처증은 “방탕피려(放蕩悖戾)”(권12)하여 여러 여성들을 편력하며 정분을 나누었던 설영문이 자신의 행태를 이차염에게 투사해서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

15) 두 장녀가 이차염을 음탕한 여성으로 무고함. 장인인 이윤수는 설영문을 증오하여 이차염이 죽었다고 거짓 장례를 치름. 이 문제는 가문간 다툼의 문제로 다시 조정에서 판가름해달라는 문제로 비화됨. 두 장녀의 죄상을 알게 되고 설영문은 이차염이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음.

반하는 사랑'을 '애초부터' 긍정하는 쪽을 택했다는 점이다. 유필염은 德性이 있고 사려 깊은 여성으로 가부장의 결정에 순종하여 중매결혼을 통해 유문에 들어온 며느리이다. 그런 여사지향형 며느리가 시누이(이차염)의 애정 행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정부인)를 위로하고 나아가 남편에게는 "이는 천수(天數)요 소매(小婣)의 기상이 복 받을 자이니 상공은 염려 말고 혼사를 수이 이루게 하소서"<sup>(권12)</sup>라고 설득하여 이차염이 설영문의 재실로 들어가도록 돕는다. 이처럼 여사형 여성이 이차염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지지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이끌어내고 그 사랑의 품격을 높인다. 요컨대 이차염·설영문 커플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남녀 쌍방의 愛慾 성향에 德性을 가미함으로써 해피엔딩을 맞는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장계성·양연화 커플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이차염·설영문 커플과는 약간 다른 편차가 있다. 이차염·설영문 커플의 경우 남녀 둘 다 '德性에 바탕을 두는 순수한 사랑'으로의 변화를 담아냈다면, 장계성·양연화 커플의 경우에는 그 변화를 양연화에 한정하되,<sup>16)</sup> 양연화가 애정추구형 여성에서 여사지향형 인물로 거듭나는 과정의 사이에 투기질투형 여성을 거치게 함으로써 그 변화의 과정을 보다 섬세하게 그려낸다.<sup>17)</sup> 투기질투하는 과정에서 양연화는 여러 악행 - 범옥주와 부용을 박해하고, 독살을 시도하며, 시비 영춘, 악소년 무리, 목군 일당에게 살해를 사주하는 등의 악행 - 저지르는데, 그 악행의 정도에 비례하여 애정 성취 욕망의 강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진행 방식은 여타의 대하소설, 예컨대 <유씨삼대록>의 유세형·(진양공주)·장혜앵 커플과 유현·(양벽주)·장설혜·왕부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남성들은 호방풍정형 인물로 설정하고, 장혜앵, 장설혜, 왕부인 등은 애욕추구형 여성으로 설정하여, 양쪽이

16) 장계성은 이몽해, 여경요, 범옥주와 혼약·혼인한 상태에서 양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그런 중에도 양연화의 시비인 부용과 육체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작가는 시종일관 장계성을 일부 다처제 하에서 호방풍정의 사랑을 하는 인물로 그려낸다.

17) 시아버지(장문현)의 지적과 이몽해의 개입으로 悔過하여 婦德을 갖춘 여성으로 거듭나 家內和睦에 기여한다.

18) 조광국, 앞의 논문, 2007, pp.67~72 참조('애정추구형'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런 여성들이 '투기질투형'으로 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해 간다. 그 과정에서 이들 세 여성은 모두 정실(진양공주, 양백주)을 투기질투하다가 여사지향형 여성으로 거듭나면 화목한 부부관계를 맞이하고(장혜영, 왕부인), 여사지향형 여성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정치된다(장설혜). <유이양문록>의 작가는 이런 대하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방식을 장계성·양연화 커플에 적용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작가가 장계성과 양연화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天定緣을 부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양연화는 장계성을 만나기 전에 꿈속에서 백두옹으로부터 “그대의 빅년가우는 명일 송하의 니를 거시니 모로미 인연을 어기오지 말나”(권51)는 지시를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장계성을 만나 첫눈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천정연이 있었기에 장계성도 양연화와 不告以娶의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정추구형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전통적인 서사 장치인 天定緣에 의해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만, 벌열가부장제 담론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 사랑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여러 악행들을 볼 때, 그 파장은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사지향형 여성의 결연(유세행·유세윤과 최일벽·최차벽의 쌍둥이 커플)의 경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3. 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㉞ 일위 규슈(閨秀)의 나상(羅裳)을 잇글고 나와 듀란(朱欄)의 비회(比回)하니 반갑고 깃브물 이기지 못하야 눈을 다시움 쓰셔 보니 스이 머러 아오라하니 즈시 아지 못하나 당시의 달 갖툼과 현비(賢妃)의 희 갖툼 안광(眼光)이 더하미 일월이 찬난흔 둥 턴상 다람화 일지(一枝)를 옥호(玉壺)의 심거 찬란흔 팔치 명광이 옥난의 도요하니 듀옥(珠玉)이 슈퇴(羞退)하고 요지(瑤池) 금미(金馬) 자리를 피하리라 현비(賢妃) 무흔 용광이며 당시의 무궁흔 광휘에 더홀 거시 아니나 즈락하야 아리잡고 섬섬하야 난초 갖툼 기질이 향염(香艷)하야 선연노라하야 텃티만상(千態萬象)이 괴이치 아닌 거시 업서 사람의 정신이 황홀하니 치봉 갖툼 엇기와 신유(新柳) 갖툼 허리 경신(輕身)하미 아니라 티진의 비둔하물

나모라니 늑척 경늪이 임의 당성(長成)호미 낫브지 아닌지라 당성이 정신(精  
神)이 어린 듯 브라며 인스를 일코 아득히 보더니 오리지 아나 몸을 두로혀  
드러가서 주렴을 지우니 낙포(洛浦)의 그림지 묘연호니 아연 실망호야 반일  
(半日)이나 어린 듯 호다가(권46)

☞에서 보듯 장계성은 완월루에서 이몽해를 훑쳐보는 순간 “정신이 황홀  
해지고 인사를 잃고 아득해”진다. 장계성은 애초에 이몽해의 미모를 확인  
하려고 안달이 나서 며칠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이몽해를 보자마자 ‘첫눈  
에 반하는 사랑’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작가는 호방풍정형 남성인 장계성과 여사지향형 여성인 이몽해의 커플  
에 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부여하고, 그 사랑을 주도면밀하게  
풀어간다. 먼저 장계성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기 전부터, 여사지향형  
의 이몽해를 포착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장계성은 일찍이 이몽해  
의 언니이자 태자비인 이몽난의 미모를 보고 이몽해도 분명 아름다울 것이  
라 짐작하여 미지의 이몽해와 혼인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장계성이 그녀  
의 미모를 확인하고자 이몽해의 시비를 사주하여 원앙패를 훑쳐오게 하는  
가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거리기도 한다. 장계성은 상층 벌벌 호방풍  
정형 남성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이몽해는 애정과는 거리가 멀고 철저히 규중심처에 은폐된 여사  
지향형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몽해는 집을 나서서 언니의 피신처(장문  
의 절부당)에 이르는데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가마를 탄 채 방안까지  
들어간다. 그런 그녀가 그만 방 밖으로 나와 화원 구경을 하다가 장계성의  
시야에 포착되고 마는데, 이는 언니와 고모의 강한 권유와 몇날며칠 동안  
감시하던 장계성의 끈기의 결과이다. 이처럼 이몽해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호방풍정형 남성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어 억울한 처지를 맞게 되는 여사지향형 여성의 캐릭터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장계성은 자신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중매  
결혼을 중시하는 주변의 분위기에 주눅이 들지 않고, 심지어 양가의 가부장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까지 한다. 단적으로 장계성은 이몽혜에게 戀書를 보내고 예비 장인인 이연기에게 편지를 보내어 양가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다.

㉞ 니쇼져 안상(案上)의 글을 올니나니 (...) 쇼제 절부당의 머머러 겨실시 완 월누의 마춤 올났다가 쇼저의 선풍화안(仙風和顏)과 성즈광휘(聖姿光輝)를 바라본즉 비록 성교(聖敎)를 심각하야 명교(名敎)의 유희호물 아라디 눈의 암암 하야 닛지 못호고 심듬 모시 되야 음식을 먹으려 하면 가슴의 느리지 아니호고 줌을 즈려 하면 눈이 감기지 아니니 숙녀 스복(思服)은 성인도 면치 못호신 빈니 나 당계성이 무슴 마음으로 니쇼져 갓튼 숙녀를 스모치 아니리오 (...) 녕 더인은 망연이 아지 못호시고 쇼싱을 유의치 아니시고 타문의 턱셔(擇婿)호시미 분분하니 만일 아득흔 둥 지류하다가 질족주(疾足者)의게 아이미 되면 나 계성은 혼갓 청년원혼이 되면 쇼저의 백년 신세 엇더리오 쇼제 비록 국공의 천금농궤(千金弄珠)시나 계성의 스모호미 이 지경의 미춘 후는 타문의 유의치 못호실 즐노 고희고 옥차 일미로 쇼싱의 덩을 표호느니 쇼저는 바라건디 싱의 일만 덩스를 슬피스 답표를 도라보니시물 원호느이다(권46)

㉟ 쇼싱 당계성은 지비호고 당돌호나 절박흔 정스를 초국공 더인기 고희느니 (...) 녕녀(舍女)의 향명(香名)이 크게 광성(狂生)의 귀에 우레 갓치 들니니 엇지 스모(思慕)호미 업스리잇고 외람(猥濫)흔 정성이 명공(明公)의 동상(東床) 썩시는 디 모침(冒忝)홀가 듀야 영더호디 명공의 평일 관홍호신 처시(處事) 도금(到今)하야 박절호미 심하야 녕녀를 공궤(空闕)의 늘게 호시고 동시 허홀 쓰지 업스니 익뵈고 노흠지 아니리잇고 바라건디 명공은 일즉 심각하샤 화평흔 처스를 헿하야 명정언순(名正言順)이 길네(吉禮)를 슈히 일오게 호쇼셔 조용이 소회(所懷)를 알외여 불팅(不聽)호시면 당계성이 형당삼차(刑杖三次) 극변원찬을 감심(甘心)홀지언덩 미친 거조를 그치지 못호리로소이다 명공은 일즉이 처치호고 후의 뉘웃지 말오쇼셔(권47)

㉞는 장계성이 이몽혜에게 보낸 戀書이다. 이몽혜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진 내력을 밝히고, 이몽혜가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면 “청년원혼이 될 텐데” 그러면 이몽혜의 “백년신세가 어떨 것이냐”며 이몽혜를 은근히

협박하기까지 한다. 장계성의 이러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이문에서는 家聲에 먹칠을 하는 사건으로 여겨 그간 다른 가문과 오가던 이몽혜의 혼담을 철회하고 이몽혜를 獨身으로 살게 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계성은 물러서지 않고 이연기(이몽혜의 부친)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소회를 밝힌다. 그 편지 내용의 일부인 ㉠을 보면, 장계성은 이몽혜를 “思慕”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吉禮”를 이루게 해달라고 청하고, 자신의 요청이 관철될 때까지 “미친 거조”를 그만 두지 않을 것이니 “후에 뉘우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기까지 한다.

㉠과 ㉡는 다른 대하소설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설정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져 삶의 통제력을 잃은 장계성의 비이성적인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상응하여 작가는 그의 행태를 “세광말속(世狂末俗)”으로<sup>19)</sup> 간주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통해 중매결혼이 일상적인 혼인 풍속에서 애정결혼으로 인한 충격을 여실히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작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충격을 첨예한 부자갈등으로 확대해낸다. 아들의 광패한 처사를 알게 된 장문현은 “대참해연(大慙駭然)하여 만면(滿面)을 붉히고 미쳐 말을 이루지 못하는”<sup>(권47)</sup>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정신을 수습한 후에 아들 장계성에게 50여 장의 매질을 가한다. 그리고 장문현은 아들이 원하는 이몽혜를 며느리로 삼는 대신에 가부장의 권한을 내세워 여경요를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들의 기를 꺾으려 한다.

상황이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19) <이연기가 장계성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 초시 세광말속(世狂末俗) 혹여시나 상한천뉴(常漢賤流)도 이런 놀으술 혹니 니를 아직 듯지 못혹였니 성교(聖敎)를 외오는 스워(士儒) 츠마 이런 노르술 혹리오 혼인은 인윤의 초관(初關)이라 둥뭇를 혹히며 길월(吉月)을 갈회어 혹날(百兩)을 수형혹문 성인(聖人)의 지극히 민드신 비라 혹지 이러듯 더러운 글을 날너 규슈(閨秀)를 혹롱혹고 니 몸의 누덕(累德)을 만인이목(萬人耳目)의 드러니야 성교를 혹고 풍화(風化)를 난(亂) 혹리오 평일 영낭(令郎)의 준발(俊拔) 혹 괴골과 초세(超世) 혹 학문이 거의 현인군지 될가 혹였니 혹지 급슈 갖튼 혹시 잇셔 상풍피속(傷風敗俗) 혹는 더러오며 스오나온 위인인 줄 알니오 처업의 여츄어츄 혹 글이 이시나 다만 일시 발각(發覺) 혹야 더인의 참괴(慙愧) 혹시물 돕지 못혹여 스스로 허물 씨다르물 기드리고 누의를 감히 감초와 인눈을 슌절(謝絶)케 혹였거늘 가지록 그치지 아니니 이는 우리 더인의 약혹물 업슈이 너겨 기롱혹며 만모(慢侮) 혹미 티심혹지라 당츄 감초지 못혹야 이의 알외나니 명공(明公)은 쇼성의 당들 혹물 용스혹쇼셔(권47)

욕망과 그에 바탕을 둔 애정결혼의 소망을 접는 쪽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겠지만, 작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고,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수용하는 길을 두 단계로 설정하여 열어 놓는다. 첫 번째 단계는 조부 장면과 태자·황제를 통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긍정하게 하고 賜婚을 이끌어낸다. 장문의 祖父(장헌)가 아들(장문헌)의 여경요 태부의 처사가 성급함을 나무라며 직접 나서서 이문을 찾아가 손자(장계성)와 이몽혜의 혼사를 주선하고, 태자가 개입하여 장계성과 이몽혜의 혼인을 上的 賜婚으로 성사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바탕을 둔 애정결혼과 중매결혼을 비교·대조하여 전자에는 긍정성을 부여하고 후자에는 부정성을 부여하는 수순을 밟는다. 먼저 장계성·여경요의 중매결혼은 파탄에 이르게 설정한다. 즉 장계성이 양가의 가부장의 결정에 의해 사랑없이 결혼한 여경요를 홀대하자 이에 여경요가 정실(이몽혜)에 대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다른 남성과의 음행을 저지름으로써 당사자들의 불행은 물론이고 가문이 패망의 위기로 치닫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반면에 장계성과 이몽혜의 애정결혼은 여러 시련 끝에 당사자들의 행복과 가문의 안정과 가문연대의 결속력을 보장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간다. 요컨대 작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으로 인한 부자갈등을 설정하여 가부장 주도의 중매결혼의 축과, 자식 주도의 애정결혼의 축을 대립시키되, 후자를 긍정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방풍정형 남성이 여사지향형 여성을 대상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이루어 가면서 양가 가부장과의 갈등, 다른 곳에 혼사가 오가는 중인 여성의 혼사 방해 등 일련의 과정은 대하소설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주로 적대인물의 캐릭터와 관련된다. 예컨대 <임화정연>의 진상문이 그러하고, <부장양문열효록>만 보더라도 여사지향형인 부월혜를 향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진 위왕이 그녀와 장원홍의 혼사를 방해하는 악인으로 나타난다. <유이양문록>에서는 그런 서사 방식을 탈피하여 남성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되,<sup>20)</sup> 나아가 가부장에

20) 장계성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같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명주

의한 중매결혼의 비극적 결말과 아들에 의한 애정결혼의 해피엔딩을 대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위상을 주도면밀하게 드높이는 것이다.

#### 4. 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그 양상과 의미

한난혜·이연기 커플, 윤운빙·이창원 커플, 영릉공주·이창희 커플이 여성만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작가는 여성들은 모두 애욕추구형 인물로 설정하되, 남성들은 편차를 두어 군자지향형 남성(이연기·이창원)과 호방풍정형의 남성(이창희)으로 나눈다.

##### 4.1. 애욕추구형 여성이 군자지향형 남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우

㉞ 소녀 난혜 우연이 니한님을 여어 보고 발분망식(發憤忘食)하야 옥엽(玉葉)의 존흐므로써 지실(再室)의 느지물 감심(甘心)하나 부디 좃고져 하느지라 한 부미 녀의 원(願)를 좃츠 상(上)게 청하야 스혼도서(賜婚詔書)를 어더 꺾박하니 스미 거역지 못하야 늑네(六禮)를 꺷초와 한쇼쥬를 마즈니(권4)

㉟ 흔 번 보미 일천 궁인이 녀술 술오니 운빙이 일견의 삼혼칠백(三魂七魄)이 유유히 훗터져 (...) 흉당(胸腸)이 놀나 저근 쥐 납씩는 듯하고 흠선(欽羨)하는 음정(淫情)이 병출(竝出)하니 얼굴이 푸르며 희여 어린 드시 좌위 고이히 녀이 더라 (...)  
니 그릇 흔 번 저를 보물로부터 삼혼칠백(三魂七魄)이 몸의 붓지 아니하야 놀나오미 가슴의 저근 진남이 썩는 듯하니 니 반드시 제 선원가를 보 앓는지라 오리지 아냐 죽으리로다”(권33)

기봉>에서 눈에 띈다. 호방풍정형 현명린이 일방적으로 여사지향형 연소자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져서 연소자의 혼사를 방해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여 혼인한 후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부부화락을 이룬다(고은임, 앞의 논문, p.119 참조). 다만 그 과정에서 현명린이 군자지향형 남성으로 거듭난다면, 장계성은 호방풍정형 성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㉔에서 보듯, 한난혜는 이연기를 우연히 엿보고 “발분망식”한다. ㉕에는 윤운빙이 이창원의 풍채를 보는 순간 “삼혼질백이 흩어지고”, 가슴에 “잔납이가 뛰는 듯”하다. 각각 “죽을 것” 같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다. 윤운빙은 이창원의 얼굴과 목소리가 “耳目에 暗暗하고 밤에 잠을 들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권33) 相思病에 들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한난혜는 부마인 한경과 양성공주(부모)의 권세를 의지하고, 윤운빙은 윤희후(이복자매)의 위세를 의지하여 上의 賜婚을 얻어내어 각각 재실로 들어앉는다.

작가는 이들이 추구하는 사랑을 남편의 사랑이 호응하지 않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려내고, 그런 여성의 짝사랑을 부정적으로 채색해낸다. 그 첫 단계로 이 두 여성의 사랑을 천성적으로 淫慾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한난혜는 어릴 적에 사찰에 들렀다가 제안법사(여승)의 “天香國色을 보고 겁적하려 한 독종”(권7)으로 묘사하고, 윤운빙은 이창원을 처음 보는 순간에 “淫情”이 솟았고 혼인 첫날밤에는 “즐거움이 미칠 듯하고 교태를 머금은”(권34) 것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작가는 한난혜와 윤운빙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투기질투 및 行惡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한난혜는 남편(이연기)이 유필염만을 사랑하자, “원한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유필염을 증오했던 나머지 유필염에게 위해를 가하고,<sup>21)</sup> 윤운빙은 친정어머니와 공모하여 정실(위군주)과 시어머니(유필염)를 모함하는 서찰 조작 사건을 벌인다.

이런 투기질투심에서 저지른 일련의 악행들은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랑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이들 여성은 자신들의 열망을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작품 곳곳에서 표출하기도 한다. 단적으로 한난혜가 결혼한 지 1년이 되도록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쫓겨날 때 “세상에 머물 뜻이 없다”라는<sup>22)</sup> 발언을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윤운빙은

21) 한난혜는 어머니와 시누이의 환심을 사면서 여러 차례 유필염을 참소함. 방술로 이연기·유필염 부부 사이를 이간질함. 시아버지 이윤수를 원방으로 나가게 한 후 거리낌 없이 유필염의 간음 사건을 조작함.

22) 전일 존고(尊姑)의 홍은혜택(鴻恩惠澤)을 피긋터 님스와 기리 슬하의 빅년을 피울가 흐엿습더니 이제 원민(怨悶)흔 하정(下情)을 감히 닷토지 못흐고 흔 번 존문(尊門)을 하직흐오미 하일하시(何日何時)의 슬하의 절호물 어드리잇고 (...) 첩이 정네 일년의 비홍(臂紅)이 완연흐되 박명을 한치 아니흐오문 존괴(尊姑) 어엿비 너기시미 쇼낭즈와 일반이라 일노 위회(慰)

남편(이창원)으로부터 시가 어른들에게 請罪하고 부덕을 갖추라는 타이름을 듣는데, 윤운빙은 그러한 권면보다는 처음으로 대하는 남편의 부드러운 태도에 마음이 풀어지고 이내 남편의 사랑을 고대했을 정도이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자 더 심한 좌절감에 빠져들었음은 물론이다.

작가는 이들 여성의 사랑을 애욕·음욕으로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남녀 쌍방이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우의 여성(이차엽, 양연화)이 여사지향형으로 거듭나는 방식과는 다르다.

㉞ 한님이 한시를 훔 번 보미 은덩이 즈연 누출(流出)하여 숙시냥구의 위로 왈 “부인의 아롭다오물 모로지 아니나 낭익이 가려던지 성례(成禮) 슈지(數載)의 학싱의 박(薄)하미 인정의 버셔나더니 금일 홀연 그디를 싱각고 이의 이르과라” 한시 눈물을 뿌려 왈 “첩이 군즈 바라논 정이 하마 망부석 되기를 감심(甘心)홀너니 금야의 츠즈시물 보니 금야의 죽다 무슴 한이 잇시리잇가” 한님이 텅파의 처연감동하야 위로하며 만동은이 바라나 마음이 급훈지라 불을 쓰고 한시를 잇그러 금니의 나으가니 운우양타(雲雨陽臺)의 초몽이 유정하고 한시 평싱의 한님 싱각하미 곱슈의 스뭇츠 죽어 윈혼(冤魂)이 미칠너니 훔낫 약의 녕험으로 금야의 무궁훈 흥을 흐무시 푸니 건권지정(纏綿之情)이 산이 낮고 바다히 엇튼지라 진실노 황금더를 무어도 이의 미지 못하리러라 날이 식미 한시로 더브러 모친기 신성(晨省)하니 부인이 놀나고 의심하더니 이후 발츠최 영설각을 써나지 아냐 한시로 더브러 화합하미 금슬우지(琴瑟友之)하고 동고 낙지(鐘鼓樂之)라(권6)

㉞ 그옥이 상냥하되 니 창원을 흠선하여 조츠문 그 전혀 품모지화를 흑하미러 니 구츠히 구러 이의 니르런 지 히 지나되 운우지낙은커니와 면목 어더보기도 어려오니 십오 청춘이 속절업시 늙으미 우읍지 아니라 뉴세창의 풍뉴문당이 창원의게 지지 아니하고 창원 미물훈 뉘 아니라 호화훈 기상이 미인의 드정당 뷔(多情丈夫)니 진짓 나의 비필이어마는 니 그릇 창원 적즈(賊者)의 괴물이 되어 텅인(賤人)가치 임의로 스람을 좇지 못홀 거시니 엇지하여야 뉴가(劉家)의 괴물이 될 줄 알니오 듀스야탁(晝思夜度)하여 번민초전(煩悶焦煎)하여 줌을

懷)하더니 이제 아조 출뷔(黜婦) 되니 진실노 세상의 머물 뜻이 업스니(권5)

일우지 못허거늘(권36)

㉮에서 보듯, 한난혜는 ‘첫눈에 반한 사랑’을 성취하고 행복해 한다. 이 연기의 伯父가 미혼단 사건을 감지하고 이연기를 외방의 경주태수로 내보낼 때, 한난혜는 “떠날 정(情)이 아득 참연(慘然)하여 … 눈물이 하수(河水)를 보텔지라 애애(哀哀)히 체읍(涕泣)하며”(권8) 사랑하는 이와 이별의 슬픈 정회를 쏟아내는 데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진실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미혼단이라는 바르지 못한 수단을 써서 얻어낸 사랑이다.

㉮에서 보듯, 윤운빙은 남편(이창원)이 아닌 유세창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고, 심지어 이창원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 후 윤운빙은 녹운동에 거쳐하면서 신운화로 개명하고 술사 호미랑의 도움으로 유세창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유세창의 不告以娶의 혼례를 얻어낸 후, 호미랑을 내세워 上의 사혼 조서를 끌어내어 유문의 며느리로 공인을 받는다. 그리고 유세창의 눈에 정실(정월주)을 추녀로 보이게 하고 자신에게만 취하게 하여 농염한 사랑을 벌어나간다.

이렇듯 작가는 한난혜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녀의 형상으로, 그리고 윤운빙을 남편이 아닌 상대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성취하려는 淫慾의인 妖婦의 형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한편으로 작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들 여성의 원한과 분노를 남편과 시가를 향한 저주와 악행으로 풀어내고 그 악행의 대한 죄값으로 비극적 종말을 맞도록 설정한다. 윤운빙은 시부에게 해대는 발악, 시부모 독살 모의, 태자에 의한 태자비 이몽난의 疏待 시도, 李門의 逆謀 참소 등 일련의 악행을 일삼고, 한난혜는 남편과의 사랑을 가로막는 큰시아 버지를 독살하기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낸다. 이들 여성은 그간 저질렀던 죄상이 날날이 밝혀지면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문과 유문에서는 한난혜의 간과 염통을 번갈아가면서 배어 먹음으로써 그 동안의 사무친 원한을 풀어낸다.<sup>23)</sup> 이러한 원한과 분노는 애초에 한난혜의

23) 당부인과 녀스인이 불승분한(不勝憤恨)하여 한녀의 비를 헤치고 간을 너여 회 먹고 더러 남겨 뉴부의 보녀여 왈 촌인이 또 존문 원쉬니 부인이 간을 맛보쇼셔 호고 신테를 문맛괴 쓰

-나아가 윤운빙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런 사랑의 강도를 적대적인 입장에서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난혜와 윤운빙을 통해 ‘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의한 남녀결연은, 여성의 과도한 愛慾·淫慾과 연계하여 悔過하는 과정이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부여한다. 요컨대 ‘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벌열가부장제 질서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비극적 종말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4.2. 애욕추구형 여성이 호방풍정형 남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경우

㉞ 대신이 두 소년으로 더브러 드러가 도하(朝賀)하고 나오미 얼굴이 바로 당 전히니 낭귀인(兩貴人)의 텃신(天神) 궂튼 의표(儀表)는 니르도 말고 (...) 품치 동탕(動蕩)하야 티을진인(太乙眞人)이 하계(下界)의 느려시니 일품 소년의 엄 엄규규(嚴嚴趨趨)하며 테테호호호 품격(品格)을 밋디 못흐나 어린 티도와 브드 러운 거동이며 절눈흐미 크게 아롭다오니 공췌 실식(失色) 왓 “이 엇던 사롭 고” 전근이 더왓 “공췌 엇디 모르시느뇨 이는 신임 한님혹스 니창희니 덩궁낭 낭(正宮娘娘) 아이시니이다” 공췌 아연실색(啞然失色)하야 어린 드시 브라더 니 입의 던의 느려 금문(禁門) 밋그로 나가니 일흔 거시 잇는 듯하야 침소의 도라와 머리 빠더 누어 인흐야 숙식을 폐하니 (...) 나의 막음이 천관(千官) 문 무빅관중(文武百官中)의 츠인의게 막음이 도라가문 텃의(天意)이시물 알디라 만일 이 사롭의게 도라가디 못흐면 결단하야 서방 맞디 아니리라”(권72)

㉞에서 보듯, 영릉공주는 한림학사 이창희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침소에 돌아와 머리를 싸고 누워 숙식을 폐할” 정도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고 만다. 영릉공주는 이 사랑을 “天意”로 받아들이고 결코 다른

어니라 하니 (...) 간과 넘통을 닷토아 원슈의 고기라 하여 먹고 오직 스지만 남아 거리의 바 렷거늘(권8)

남성을 서방으로 맞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작가는 이처럼 영릉공주가 일방적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진 것으로 설정하되, 한난혜와 윤운빙의 남편이 군자지향형 인물인 것과는 편차를 두어 이창희를 호방풍정형으로 설정한다.<sup>24)</sup> 그렇지만 앞의 두 여성과 같이 영릉공주의 사랑을 愛慾·淫慾으로 끌고 간다. 이를 테면 그녀가 어릴 적부터 창가 출신이었던 유모·보모·궁녀의 무리로부터 “淫亂”함을 배워 “淫慾이 요동하여 옥모가랑을 사모하는 情”이 많은 여성으로 설정하고, 영릉공주를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그려낸다. 설백경(설영문·이차엄 부부의 장자)을 자신의 배필로 정한 上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혼사를 물려달라고 청하는 것은 약과였고, 그 소청을 거절당하자 의기소침하기는커녕 주처사의 딸로 변장하고, 순무 차 금릉 지방에 온 이창희에게 미혼주를 먹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영능이 주야(晝夜) 순검의 자취를 바라다가 그 취하야 날호여 텅보호는 거동을 보미 반갑고 깃븐 욕심이 밋칠 듯하야 천환만어(千歡萬語)로 다리어 취하야 디오미 나아가 불을 드러 꺾티 노코 즈시 보니 취안(醉顏)이 상시 얼굴도 곧 빅승절륜(百勝絶倫)하야 풍영하며 윤턱하야 옥이 슬찌고 명월이 광치를 비앗터며 흥빅 모란이 셋거 띄엇는 듯 니빅(李白)의 출주의 취혼 괴상을 닐크르 시나 엇디 이 얼굴의 반이나 감당홀 비리오 음녀(淫女)의 정혼(精魂)이 구슈(九霄)의 호터더 (...) 드더여 오솔 벗고 드러누으니 니한님이 다만 독혼 주괴의 총명이 아조 빠더 옥 꺾고 쏫 꺾흔 미인이 드러누어 꺾지오미 방탕흔 취직이 엇디 삼갈 일이 이시리오 (...) 음녀의 삼스삭 미치고 미친 정욕이 쾌하야 즐겨호는 거동이 불가형언(不可形言)이라 츠마 괴록기 어렵더라(권72)

영릉공주는 한난혜처럼 남편에게 미혼주를 먹이는 잘못된 방식을 써서 첫눈에 반한 남성과 동침하면서 “정욕이 쾌하여 즐거워하는 거동”을 마음껏

24) 성질이 급하고 맹렬하며 혈기가 방강함. 여색을 밝혀 열 두세 살 때부터 집안 미인들과 관계함. 15세에는 지방의 기녀 10여 명과 정을 맺을 정을 맺음.

펼친다. 그 후 영릉공주는 이창희와 수 차례 육체적 관계를 맺고 잉태한 후, 어미 정첩여와 공모하여 상으로부터 설백경과의 혼사 중지 발언을 이끌어 내고 우여곡절을 거쳐 이창희와 혼인함으로써<sup>25)</sup>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성취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영릉공주는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원한을 표출하고 급기야 다른 남자를 대상으로 애욕을 채우는 태도를 취한다. 유모는 미소년 영강이 영릉공주를 겁탈하게 함으로써 영릉공주의 음욕에 불을 붙여 영강을 궁안에 감추어 두고 荒淫을 일삼게 한다. 또한 궁노 전충을 사주하여 궁궐 감옥에 갇혀 있던 남편의 정실인 장빙염을 겁탈하게 했다가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공주 직첩을 빼앗기고 귀양살이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영릉공주는 윤운빙과 같이 음욕의 화신이자 妖婦의 모습을 띤다.

한편으로 영릉공주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해 일말의 긍정적인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문의 연부인이 영릉공주의 음란함을 알아채고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지만, 며느리(영릉공주)를 영릉궁으로 보낸 뒤 함구한다. 영릉공주가 유배지에서 새 情人과 사랑에 빠져 자식들을 두었어도 징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문에서 이창희와 영릉공주 사이에 태어난 혈육을 버리지 않고 양육한다. 영릉공주의 종말이 최악의 과국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여기에 여성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愛慾 성향을 지닐지라도 순수한 사랑과 애욕을 분리시키기는 어렵다는 작가의 목소리, 내지는 부부 사이에서 애욕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작가의 목소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벌열가부장제의 틀에 은폐되어 있던 여성의 애욕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것이다.

25) 영릉공주는 이창희가 영릉공주임을 알고 육체관계를 맺었다는 거짓말을 함. 그 거짓말이 탄로남. 영릉공주를 구하기 위해 정첩여(공주의 모친)가 자살 소동을 벌임. 이몽난이 정첩여를 위로함. 조정회의에서 공주를 폐위서인(廢爲庶人) 조치함. 이문에서 이창희를 처벌해 달라고 상소함.

### 5. 결론

조선후기 대하소설인 <유이양문록>은 벌열가부장제 담론을 지향하면서도 그 담론에 과장을 일으키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미시담론을 일곱 쌍에 걸쳐 다채롭게 제시해낸다.<sup>26)</sup> 그 다양한 애정담론은 애정 주체의 성별에 따라 (1)남성과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2)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3)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으로 나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남성과 여성 쌍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세부적으로 ㉠군자지향형 남성과 여사지향형 여성’의 커플,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정추구형 여성’의 커플로 나뉜다. ㉠의 경우, 대하소설의 일반적인 서사방식으로는 양가의 가부장에 의한 중매결혼이어야 하는데, 그런 상례를 넘어서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부여하고, 이 사랑과 天定緣을 연계함으로써 벌열가부장제 담론에 미묘한 反響을 일으켰다. ㉡의 경우에는 이차염·설영문 커플과 양연화·장계성 커플 두 쌍으로 나누어 설정했는데, 이차염·설영문 커플을 통해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애초부터 긍정하는 쪽을 택했다. 德性을 갖춘 올케(유필염)가 시누이(이차염)를 지지하는 방식과, 이차염과 설영문이 각각 여사지향형 여성과 군자지향형 남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격조를 높였다. 양연화·장계성 커플의 경우에는 이차염·설영문 커플과는 편차를 두어 장계성은 초지일관 호방풍정형으로 설정하고 양연화는 투기질투형 여성을 거치는 과정을 부여하되, 이들 부부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 또한 天定緣과 연계함으로써 벌열가부장제 담론에 과장을 일으켰다.

26) 이 점은 남녀결연을 집약화한 <유씨삼대록>, <명주기봉>과 비교해보면 선명해진다. <유씨삼대록>에서는 11쌍의 결연이 나오지만,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호방풍정형 남성과 애욕추구형 여성의 커플 세 쌍에서 반복적으로 설정된다. <명주기봉>에서는 일부다처인 경우를 1:1로 세분하면 15커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커플은 3커플뿐이다. 이 세 커플로는 군자형 남성이 일방적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현교염·하옥경 커플과, 애욕추구형 여성이 일방적으로 군자지향형 남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사마영주·현웅린 커플, 호방풍정형 남성이 일방적으로 여사지향형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빠지는 현명린·연소저 커플이 있다(고은임, 앞의 논문, pp.26~30. ; p.116 참조. ; p.119 참조).

그리고 (2)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호방풍정형 장계성과 여사지향형 이몽혜의 결연으로 보여준다. 장계성은 이몽혜의 혼약 방해 및 파기, 장인과의 대립, 부친과의 심각할 갈등 등을 벌이는 것으로 설정하여 상층의 별열가부장제적 중매결혼의 축에 대립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애정결혼의 축을 강조했다. 즉 장계성을 중심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애정결혼에는 행복한 결말을, 가부장이 주도하는 중매결혼에는 비극적인 결말을 부여함으로써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별열가부장제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다. 세부적으로는 ①한난혜·이연기 커플, 윤운빙·이창원 커플과, ②영릉공주·이창희 커플로 나뉜다. 남성들을 균자지향형 남성(①이연기, 이창원)과 호방풍정형 남성(②이창희)으로 편차를 두는 한편, 여성들은 모두 애욕추구형 여성으로 설정하되, 가문의 권력을 이용한 賜婚, 정실의 박해 및 살해 시도, 미혼단 사용 등 전형적인 투기질투의 惡行을 일삼게 하고, 윤운빙과 영릉공주에게는 다른 남성과 한 차례 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이루는 淫女·妖婦의 형상을 더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이들 여성이 회과하여 여사지향형 여성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惡人·妖婦 형상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처형(한난혜와 윤운빙)과 귀양살이(영릉공주)라는 비극적 결말을 부여한다. 이렇듯 (2)남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별열가부장제 질서에 파장을 일으키지만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냄에 반해, 여성의 그런 사랑은 애초부터 별열가부장제 질서를 와해하는 것이어서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내는바, 성차별적 형상화 방식을 고수했다. 물론 (3)여성 일방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해 일말의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귀양살이하는 영릉공주가 새 情人을 사랑하여 자식을 낳는 것으로, 그리고 이 문에서는 영릉공주와 이창희 사이에서 난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그려낸 것이다. 상층의 별열가부장제 하에서 상층여성의 애욕 추구에 대한 틈새를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해 놓은 것이다.

대하소설에서 “애정적 욕구가 ‘부정된다’ 혹은 ‘긍정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인데,<sup>27)</sup> <유이양문록>의 작가는 상층의

별열가부장제를 지향하면서도 그런 거대담론의 틀 안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긍정적 과장을 미세하면서도 분명하게 포착해냈다. 이 작품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열망과 성취는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부상한 중매결혼의 반대, 자유연애의 고취와 같은 사랑의 新風俗을 이끌어낸 어떤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했으리라. 현대문학 연구자들 중에는 당시 유입된 외국의 戀愛가 우리 연애의 근원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이양문록>에 구현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접한다면, 외국의 연애는 대하소설과 같은 우리 문화의 근저에 흐르던 연애에 불을 지른 촉발제로, 그러면서도 연애를 지속적으로 타게 하는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그 발언을 다소간에 수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고전과 현대를 잇는 문학사적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대소설 연구자들, 나아가 고전문학 연구자의 손길과 시선이 닿지 않은 상층별열의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애정담론을 연구 차원으로 끌어올린 그 자체로 -고전과 현대의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되기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

27)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4, p.76.

참고문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뉴니양문록> 77권77책본(권6, 권74 낙질).

김기동, 『화산선계록과 유이양문록』, 『현평효박사 화갑 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0, pp.91~101.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pp.1~122.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4, pp.21~135.

양민정[양혜란],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양반 가문의 애정혼 고찰」,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pp.261~291.

이수봉, 「유이양문록연구」, 『개신어문연구』 4, 개신어문연구회, 1985, pp.127~175.

이지영, 「중국 배경 대하소설에 나타난 금강산의 의미 -<유이양문록>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49, 한국문학언어학회, 2008, pp.213~246.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pp.32~33.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pp.179~208.

\_\_\_\_\_,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2007, pp.55~84.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인물과 공간 연구」, 『국어국문학』 151, 국어국문학회, 2009, pp.283~309.

\_\_\_\_\_, 「유이양문록의 구성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1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pp.107~128.

열 나우만(지음), 김은우(옮김), 『첫눈에 반한 사랑(Love at first sight)』, 뿌리와 이파리, 2002, pp.1~156.

## On the aspects of the love at first sight in *Yuiyangmunlok*

Jo, Gwang-guk

The aspects of the love at first sight are represented in *Yuiyangmunlok*. They are classified as follows : the case (1); male-and-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he case (2); only 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he case (3); only 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he case (1); male-and-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his case is divided in two tiny cases. One is the couple of a man of virtue and a woman of virtue, the other is the couple of a vigorous man and a woman of a tender feeling. The case of the former, an arranged marriage is embodied generally in a saga novel, but a love marriage is embodied in *Yuiyangmunlok*. The case of the latter, the love at first sight is approved from the first beginning, and supported by a woman of virtue. And somewhat variation of the case of the latter is embodied through out of matrimonial ties preordained by Providence.

The case (2); only 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his case is combination of a vigorous man and a woman of virtue. A conflict between the wife's father and a son-in-law, and a conflict between father and son are embodied, and then a conflict between a love marriage and an arranged marriage are embodied through out, finally on one hand a love marriage obtain happy ending, on the other unhand happy ending.

The case (3); only 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two-type couples are embodied. One is the couple of a man of virtue and a woman of a sexual passion, the other is the couple of a vigorous man and a woman of a sexual passion. However a woman of a tender feeling are not accepted. Man's love at first sight is acceptable, however woman's love at first sight is acceptable. Nevertheless woman's love at first sight leave spaces; a royal princess had a new lover, and beared a his child.

In short, *Yuiyangmunlok* has the affirmative sight on the love at first sight. the love at first sight. The attainment of the love at first sight in *Yuiyangmunlok* had an effect on the disclaim of an arranged marriage and the inspiration of free love in the ending of 19century and the beginning of 20century.

Key words : love at first sight, male-and-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only 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only female's the love at first sight, a love marriage, an arranged marriage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
---